



2024년 EU 돼지고기 수출: 경기 침체 이후의 안정성

2025년 5월 14일/ Pigmeat Trade Data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직원 3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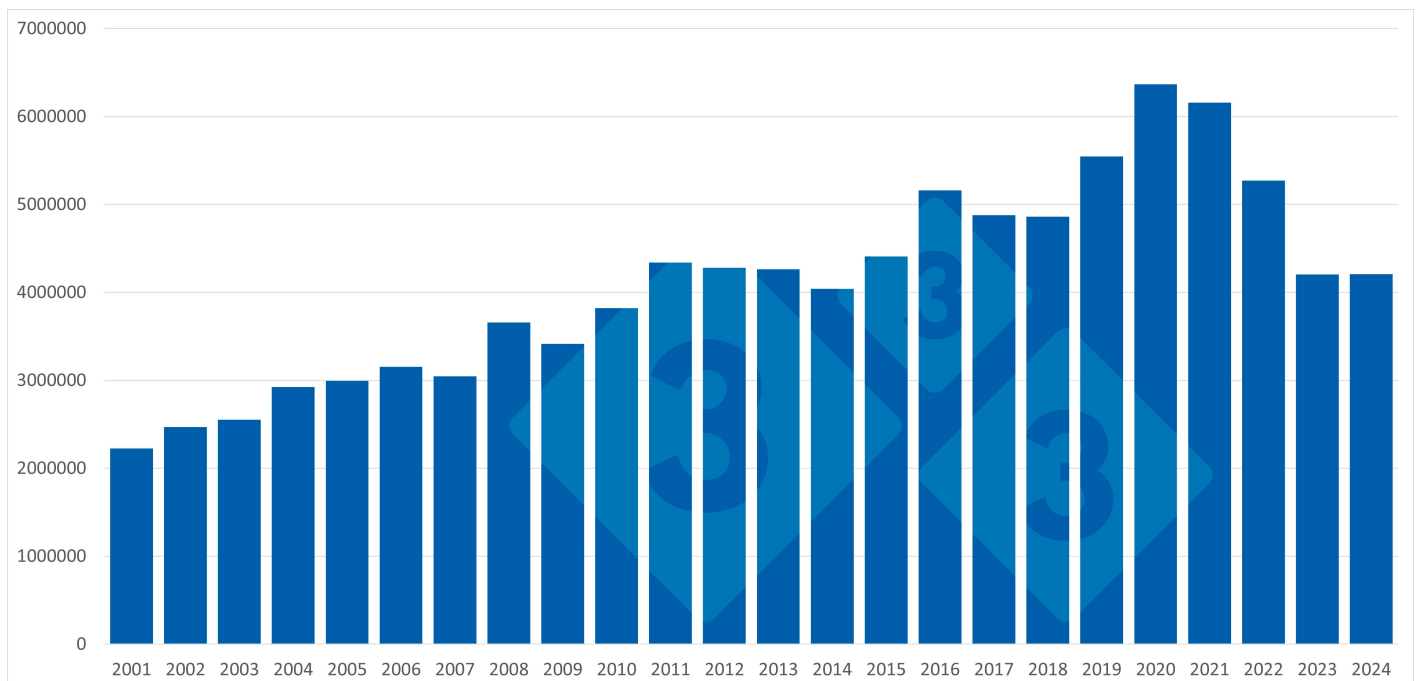
2025년 5월 15일 (어제)

총 수출

2024년 유럽연합에서 제3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의 총량은 421만 톤으로 2023년(420만 톤)과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역대 최고 기록인 2020년(636만 톤)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 부문의 대외 무역은 아시아 수요(특히 중국)와 유럽 제품의 경쟁력에 힘입어 20년 동안 거의 300%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증가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에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EU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어 단 4년 만에 33%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부분적으로 중국 생산 회복과 더욱 불확실해진 국제 정세에 기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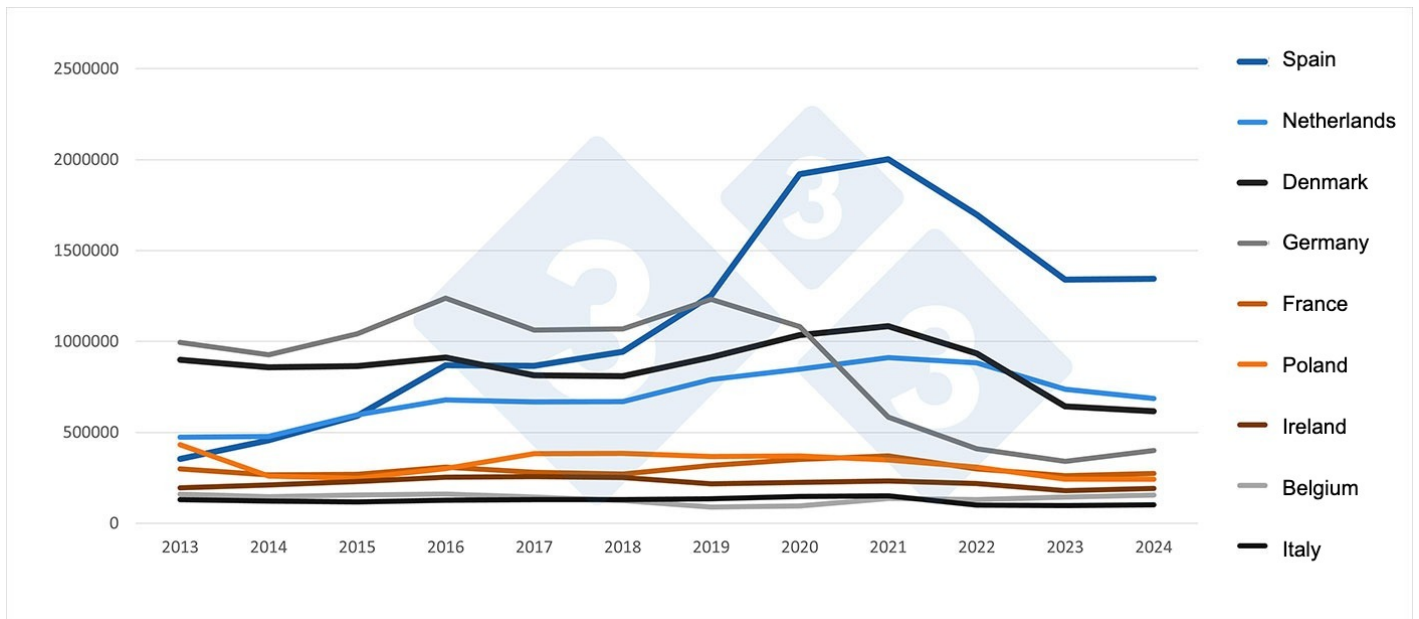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가 수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4년에도 스페인은 유럽 연합에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유지했으며, 제3국으로 134만 톤 이상을 수출하여 나머지 회원국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네덜란드는 2024년에 68만 6천 톤을 수출하며 독일과 덴마크를 크게 앞지르며 2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였던 덴마크는 61만 6천 톤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2023년 대비 약 1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톤으로 4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 123만 톤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2020년 이후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독일에 처음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로 인해 독일 돼지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시장이 폐쇄되었습니다.

프랑스는 4.8% 증가했고, 폴란드는 30만 톤 미만으로 중간 그룹에 속했으며,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20만 톤 미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 10만 2천 톤으로 2023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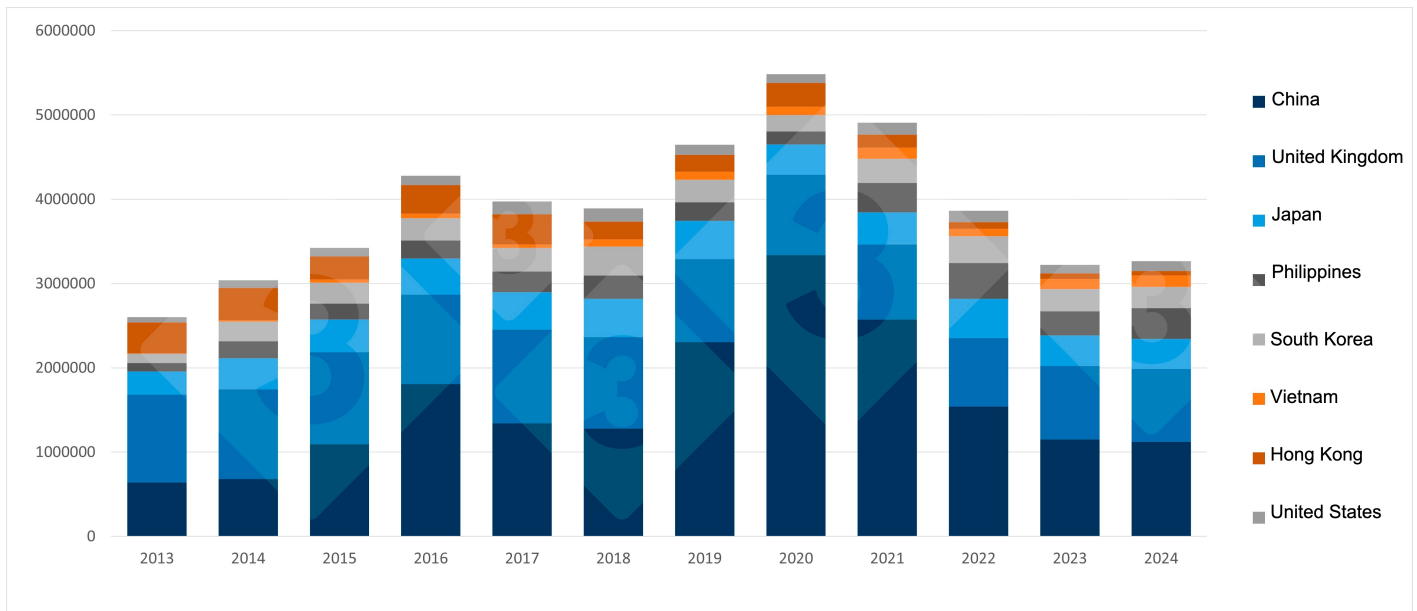


주요 목적지

중국은 유럽 연합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 2024년 총 1,123,815톤을 수출하여 2023년 대비 소폭 감소(-2%)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0년 최고치였던 3,337,529톤에 비해 56% 급감한 수치입니다.

반면, 영국은 2024년 864,210톤으로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 자리를 유지했지만, 이전 연도(2017-2019년)의 100만 톤을 돌파한 기록에 비해 점진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무역은 여전히 건실합니다.

필리핀은 2024년에 366,518톤을 수입하여 3위를 차지하며, 유럽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 354,734톤을 수입한 일본을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한국, 베트남, 미국은 상당한 수입량을 기록했지만 수입량은 감소하여 상위 수입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2013년과 2014년에 350,000톤을 초과했던 홍콩은 2024년에 53,624톤으로 점유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출품

냉동 돼지고기는 173만톤(전체의 41.1%)으로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으로 꼽혔는데,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반면, 내장 수출은 6.8% 증가하여 전체(124만 톤)의 29.4%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신선 돼지고기 수출이 9.3%(+0.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쿨드컷 수출은 소폭(-0.6%) 감소했지만 9.2%의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숙성 돼지고기, 훈제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반면,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지방과 라드는 2023년에 비해 거의 5%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냉동육과 내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제품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